

‘홍채인식’ 보안혁신 열쇠… 국내 상용화엔 법·인프라 과제

홍채인식 시장, 6조서 14조 급성장
해외기업 도입 활발… 韓 ‘초기단계’
민감정보 분류… 관리 시스템 필수
기술 발전·개인정보 보호 조화 관건

인간의 눈동자가 열쇠가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홍채 인식 기술이 지문과 얼굴 인식을 넘어 차세대 보안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인프라 문제 등으로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채인식은 눈의 동공과 흰자위 사이에 있는 홍채의 도넛 모양 패턴을 분석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홍채는 약 266개의 고유한 식별 특징을 지니고 있어 위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보안성이 높다. 두 사람이 동일한 홍채를 가질 확률은 약 10억분의 1에 불과해 지문(1억분의 1)보다도 유일성이 높다. 홍채는 생후 18개월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아 신뢰도가 높은 생체 정보로 간주한다.

오류 확률 또한 매우 낮다. 홍채 인식의 오류 확률은 100만 분의 1 수준에 불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홍채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AI 이미지.

과하다. 특히 양쪽 눈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오류 확률이 1조분의 1로 더욱 낮아져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다.

◆6조에서 14조 규모로 성장… 국내 기

업 도입은 ‘초기 단계’

이러한 보안성 덕분에 홍채 인식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 조사 기관 모던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4년 약 6조 3000억원(47억4000만달러) 규모

였던 홍채 인식 시장은 2029년 약 14조 원(104억 7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 NEC 등 세계 기업들은 이미 홍채 인식 기술을 도입해 보안 강화를 꾀하고 있다. 애플은 혼합현실(MR) 기기인 ‘비전 프로’에 ‘옵티크ID’라는 홍채 인식 기술을 탑재해 사용자 인증이나 애플 페이 결제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 NEC Corporation도 홍채 인식을 포함한 다양한 생체 인식 시스템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일본 내 정부 기관이나 공항, 금융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아직 홍채 인식 기술의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과거 갤럭시 S8, 노트7 등 일부 스마트폰에 홍채 인식 기능을 도입했으나, 비용과 사용자 편의성 문제로 이후 모델에서 제외했다. 비용과 사용자 편의성 문제로 전면 도입에는 이르지 못했다. LG전자는 현재 산업 현장과 보안이 중요한 구역에서 홍채 인식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

◆홍채 ‘민감정보’로 분류… 안전한 관리 시스템 필수

국내에서 홍채 인식 기술 상용화가

더딘 이유로 비용과 인프라 구축 문제가 지적된다. 홍채 정보는 개인 고유의 생체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집 시 별도의 동의와 안전한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보다 고도화된 인프라가 요구되고, 생체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까지 더해져 초기 도입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홍채 인식 기술이 대중화하려면 기술적 편의성 개선과 함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수적이다. 기존 홍채 인식 기술은 근거리에서만 인식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지며, 조명이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인식률이 저하될 수 있다. 또 생체 정보는 위조나 도난 시 복구가 불가능한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안전한 저장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홍채 인식 기술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관련 법규의 정비가 병행해야 한다”며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이 기술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미래 대비 위한 AI·SW 기반 혁신 필수”

LS그룹 ‘양손잡이’ 경영 가속화
전기차·배터리·반도체 신성장동력
Vision 2030, 자산 2배 확대 목표

LS그룹이 전기·전력·소재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CFE(탄소 배출 없는 전력)와 배·전·반(배터리·전기차·반도체) 관련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해 ‘양손잡이 경영’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LS그룹에 따르면 구자는 회장은 지난해 2030년까지 자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Vision 2030’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초, 신년사에서 그룹의 성장을 위한 비전으로 ▲ 제조 안정화 및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 확보 ▲ 미래 신사업·신시장 개척 선도 인재 확보 및 육성 ▲ 경영철학 ‘LS파트너십’ 재무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구 회장은 지난 1월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현장을 찾아 임직원들에게 “양손잡이 경영전략의 핵심인 LS의 원천 기술과 AI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우리 LS만의 미래혁신 기술을 창조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LS는 어떠한 미래가 오더라도 AI, SW 등 다양한 협업



구자는 LS 회장이 지난 3월,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 참관, LS 부스를 방문해 LS이모빌리티솔루션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LS그룹

과 기술 혁신으로 짧게는 10년, 그 이후의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업 체계를 갖추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LS그룹은 지난 3월 ‘인터배터리 2024’에 참가해 그룹 내 계열사들이 보유한 배터리 소재, 산업용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전기차 전장 제품과 충전 시스템 등 미래 에너지 종합 기술을 선보였다. 현장을 찾은 구 회장은 “전기차 소재부터 부품, 충전까지 수많은 기업

들이 지난해보다 더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것을 보면서 LS 또한 전기차 생태계에 정진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 회장의 이 같은 행보에 따라 LS의 주요 회사들은 전력 인프라와 종합 에너지 솔루션 분야의 오랜 사업적 경험을 살려 배터리 소재, 전기차 부품 및 충전 솔루션, 친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 발굴 및 추진하고 있다.

우선 LS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LS는 EV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 사업 개발을 위해 신규 법인 ‘LS이링크’를 E1과 공동 투자하여 설립했다. LS는 LS이링크를 앞세워 그룹 내 전기차 충전사업 역량을 모으고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LS이링크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대형 운수·화물 등 B2B 고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진행 중이다.

LS이링크는 대형 운수, 물류, 화물 등 전국의 주요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안정적 실적 등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 IPO(기업공개)를 추진, 유입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기술력 강화와 사업 확장을 꾀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T멤버십으로 호텔 파인다이닝 즐겨요”

SKT, ‘Table 2024’ 개최

SK텔레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T멤버십 미식 행사 ‘Table 2024’를 개최한다. Table은 미식과 공연을 함께 즐

길 수 있는 T멤버십 프로그램이다. 팬데믹으로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재개된다. Table 2024에 초청된 고객들은 12월 24일 오후 6시 5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위키힐 호텔에서 특선 코스 요리

를 즐기며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응모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T멤버십 앱을 통해 진행되며 SKT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당첨자는 12월 4일 개별 안내되며 선정된 150명 고객은 동반자 1인과 함께 행사를 즐길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고부가 선박 확대에 ‘6분기 연속’ 흑자

HD한국조선해양, 3분기 영업이익 3984억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조선업계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77.4% 증가한 398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31일 잠정 공시했다. 6분기 연속 흑자 기록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6% 늘어난 6조 2458억원, 순이익은 49.0% 감소한 176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이한 가운데 고부가가치 선박 비중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자회사 HD현대중공업의 매출액은 3조 6092억원, 영업이익은 206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5%, 영업이익은 1497.7% 늘었다.

HD현대삼호와 HD현대미포도 각각 1조 6435억원과 1조 776억원의 매출, 1776억원과 35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선박 엔진 계열사인 HD현대마린엔진은 매출 527억원과 영업이익 54억원을, 태양광 계열사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매출 1006억원과 영업이익 34억원을 거뒀다. 사업 부문별로는 조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4% 늘어난 5조 3226억원, 영업이익은 406.4% 늘어난 3782억원을 기록했다.

엔진기계 부문은 HD현대마린엔진 연결 편입 이후의 실적이 반영되고 물량도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4.3% 증가한 86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엔진 비중이 확대되며 33.2% 증가한 1024억원을 기록했다. 해양플랜트 부문은 1835억원의 매출과 2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양성문 기자 ysw@

한화큐셀 진천사업장, 안전관리 최고등급

안전관리 강화·체계화 성과 인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현장안전관리 강화 및 체계화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모듈 제조 공장인 충청북도 진천사업장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태양광 기업이 이 평가에

서 최고 등급을 취득한 것은 처음이다.

PSM 이행평가는 안전관리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 권위의 정부 공인 평가 제도로,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로부터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P(우수), S(양호), M+(보통), M-(불량)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한 사업장은 정부 관리 대상인 전국의 약 2000개사 가운데 단 5%에 불과하다.

/차현정 기자 hyeon@